

## 기독교 상담의 통합적 원리와 특징

강 연 정\*

### 국문초록

기독교 상담은 수용과 거부 그리고 통합의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다.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의 통합적 원리를 정리하고, 기독교 상담과정 및 기법의 통합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 상담과 심리학의 통합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의 권위, 성경적 인간관, 기독교 세계관, 상담이론과 기술 및 기법의 선택적 수용, 신앙자원의 활용, 상담자의 인격과 신앙, 삶과 윤리 등과 같은 8가지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기독교 상담과정은 일반상담의 초기-중기-말기와 같이 이루어지며, 상담의 개념 및 목표에 맞는 이미지를 따라 제시되어지고, 인지-정서-행동-영성과 같은 전인적 인간이해를 기초로 내담자의 변화와 성숙을 향해 전개되어지며, 전통적 신앙자원(예: 성경, 기도, 찬양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특징이 있다.

기독교 상담의 기법은 일반상담기법 중 기독교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상담기법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리 효과적인 상담기법도 기독교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인지 검증해야 하며, 기독교 상담의 영역에서만 사용가능한 도구나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독교 관점에서 개발되어진 상담도구, 프로그램, 기법 등의 개발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독교 상담자를 위한 훈련 및 방법의 활용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통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기독교 상담, 통합, 통합원리, 기독교 상담과정, 기독교 상담기법

• 논문 투고일: 2019년 10월 2일

• 논문 수정일: 2019년 11월 2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11월 5일

\*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부교수

## I. 여는 글

1953년 Fritz Kunkel이 기독교와 심리학을 하나로 합하고자 시도하며 통합(integration)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Vande Kemp, 1996), 기독교 상담에서 통합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통합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자들의 인식과 관점에 따라, 통합의 내용, 방식, 주제, 유형, 기법 등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용태, 2006; Bouma-Prediger, 1990; Carter & Narramore, 1979; Collins, 1981; Crabb, 1992; Fansworth, 1982; Kirwan, 1984; Moon, 1997). 통합은 주로 기독교 상담의 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져 왔지만, 다양한 문제와 배경을 가진 내담자들을 돕는 상담의 과정 가운데 자신의 상담이론이나 모델의 한계를 경험한 상담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일반 상담의 영역에서도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간의 통합 및 절충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Jones & Butman, 1991; Marquis, 2011; McMinn & Campbell, 2016; Welfel & Patterson, 2009). 통합(integration)과 절충(eclecticism)은 하나 이상의 다른 이론의 내용과 기법을 취합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통합이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중 한 이론을 기초로 다른 이론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완성된 형태의 융복합적 접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절충은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의 내용과 기법 중 필요하거나 좋은 것을 취사선택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Jones와 Butman(2009: 519-535)에 따르면 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에서의 절충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접근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혼돈에 가까운 절충주의로 모든 이론을 한데 섞어서 비빔밥 수준으로 만드는 ‘혼합주의적’ 접근이며, 둘째, 실용적 절충주의로 이론적인 기반을 선호하기 보다는 내담자에게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것을 취

하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다. 셋째, 메타이론적/초이론적 취사선택주의인데, 이것은 이론 뒤에 있거나 또는 이론을 넘어서는 이론이나 임상 실재를 추구하는 접근으로 예를 들면 이론과는 상관없이 효과적인 상담사의 자질과 태도 등과 같은 요소들을 취하려는 ‘초이론적’ 접근이며, 넷째, 이론적 통합주의는 선호하는 한 이론을 자신의 기초이론 또는 홈페이지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확장하며 풍성하게 할 한 두 가지의 다른 이론의 일부를 동화시킴으로서 단일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성도가 높은 융복합을 이루어내려는 ‘통합적’ 접근을 말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통합은 절충의 가장 완성도가 높은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Jones와 Butman(2009: 34-35)는 기독교와 심리학을 건설적으로 통합하는 데에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첫째 단계는 ‘비평적 평가 단계’이다. 이는 기독교적 관점과 분명하게 양립하지 않는 일반 심리학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대화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이 단계는 일반 심리학의 좋은 점은 골라내고 나쁜 점은 버리는 단계이지만, 이 과정에서의 통합은 유용한 통찰과 도움을 주는 하나의 접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단계는 ‘이론 구축 단계’인데,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비평적 평가단계에서 대화를 시도했던 일반 심리학의 장점을 밝힌 다음에 이 장점들을 종합하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며,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 새로운 가설과 이론을 제안해야 한다. 물론 이 가설과 이론은 기독교적인 전제들을 함축하는 것이어야 하며, 통합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의 개관에서 더 나아가 연구를 직접 실시하고, 자신의 연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비평적 평가를 위해서는 첫째, 어떠한 상담 접근법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 가정과 전제’를 주의깊게 살피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의

철학이 다양한 상담의 접근 방법들을 모두 통일할 수는 없으며, 각각의 접근법은 현실과 진리, 목적, 인간성 등의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어떠한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들의 기초가 되는 ‘성격이론’ 또는 ‘인간관’을 검토하여야 한다. 무엇이 인간의 성품과 행동을 결정짓는지, 인간을 어떠한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성격이론과 인간관이 기독교 신앙과 양립될 수 있는 것인지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인간의 이상성(abnormality)에 대한 핵심적 이해를 주의깊게 검토해야 한다. 어떤 성격이론을 논할 때는 정상적인 성격 발달에서 이탈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어떻게 변화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각각의 이론은 비정상성에 대한 관점을 보완해주는 ‘전인성에 대한 시각’이 있기에, 어떤 특정한 심리치료 전통에 깔려 있는 정상성에 대한 목표와 관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며, 각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심리치료 모델의 기본적인 신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담자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주로 제시되는 일부 변화의 방법들은 성장 과정에 대한 직감적이거나 평범한 이해들과 유사하므로, 각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의 상담과정과 기법이 내담자의 변화에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지 탐색해야 한다. 여섯째,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각 상담 및 심리치료 접근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비평적 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독교 학자의 역할이며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Jones & Butman, 2009: 45-51).

본 연구에서는 통합과 절충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담의 영역에서 기독교 상담이 심리학과 통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독교 상담에서의 통합에 대한 이해와 원리를 살펴본 후에,

기독교 상담의 과정과 기법에 대한 통합적 특징을 정리해 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기독교 상담의 통합의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 II. 펴는 글

### 1. 기독교 상담에서의 통합의 이해와 원리

#### 1) 통합의 역사

상담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대로부터 각 민족의 치유의 역사는 주로 무속신앙의 지도자나 마술사 등에 의한 사람들의 질병 또는 마음의 병을 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이러한 치료(cure)는 신에 의한 치유(healing)라고 불려졌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치유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는데,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 등과 같은 영적 활동을 통한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로서 신자들의 신체, 마음, 영혼을 모두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해왔으며, 이러한 기독교 상담의 역사는 뿌리의 역사(김용태, 2006)라고 불리워진다.

이후 서구 사회에서의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발달로 인해 기독교 진영과 교회 공동체에 인본주의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영향이 밀려들게 되었으며,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목회 돌봄의 일환으로 일반 심리학과 정신의학을 수용하고, 임상목회교육 등과 같은 전문 심리학 훈련을 거쳐 일반 심리학 이론 및 기법들을 활용하는 Anton Boison, Seward Hiltner, Howard Clinebell 등과 같은 목회상담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Hurding(1985)은 심리학의 철학, 이론, 기술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접근을 동화라고 불렀으며, 이는 심리학 이론이나

기법들을 활용 차원에서 받아들여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수용의 역사(김용태, 2006)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상담에서의 동화와 수용의 접근이 주로 자유주의 신학적 배경을 가진 목회상담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보수적인 신학과 복음주의 전통의 기반에서 목회 돌봄을 제공하던 목회자들이나 상담자들이 이러한 접근에 많은 회의와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일반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가정들이 아무런 검토없이 목회상담에 무분별하게 수용되고 있는 현실과 함께,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 용서, 은혜, 성경 등과 같은 기독교의 전통과 성경적 가르침의 주요 개념들이 상담에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 상담의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반동(Hurding, 1985) 또는 거부(김용태, 2006)의 역사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상담자로 J. E. Adams를 꼽을 수 있다.

그 이후 기독교 상담은 신학과 심리학 간의 대화(Hurding, 1985)와 통합(김용태, 2006)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오윤선(2010: 68-73)은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왔다고 보고 있는데, 첫째 단계(1950년-1975년)는 심리학에 우호적인 관심을 가진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기독교와 심리학의 관계에 대하여 기초적인 개념을 소개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한 단계이며, 둘째 단계(1975년-1982년)는 심리학과 신학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각종 모델이 소개되면서 기독교 심리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1980대-현재까지)는 통합의 실제적인 단계로서 '학문 간의 통합', 즉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보다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 하겠다.

## 2) 통합의 유형

통합은 그 개념, 영역, 내용, 이유, 의미,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통합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학문적 통합, 실제적 통합, 개인적 통합, 내용적 통합 등의 4가지의 유형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김용태, 2006; Bouma-Prediger, 1990; Moon, 1997).

학문적 통합은 신학과 심리학, 신학과 과학 등과 같이 학문 간의 통합(Bouma-Prediger, 1990)을 통하여 새로운 학문인 기독교 상담학을 만들어 내하고자 하는 접근이며,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성 중의 하나인 학문과 학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추구하는 학자들은 두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기독교 심리학 또는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학문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며, 심리학의 과학적 접근과 신학의 종교적 접근이 어떻게 관련이 있고 없는가, 과학과 종교가 어떤 방식으로 관련을 맺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론적 내용과 임상적 실제 사이의 통합, 즉 상담이론에 충실하게 임상 실재를 수행하는 접근인 학문 내 통합(Bouma-Prediger, 1990)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상담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개념과 세계관이 상담의 실제에 충분히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이론적 가정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적 통합은 상담의 임상적 측면을 강조하는 접근으로써 심리학과 실제 등의 용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임상적 통합 또는 실천적 통합이라고도 불린다. 통합은 상담이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이루어지며, 임상 실제에서 심리학적로나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예를 들면 기독교 상담의 임상 실제 또는 상담 연구의 장면 등에서 성경과 기도의 활용이 효과적인지,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등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 연구하며,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아울러 상담이론에 맞는 상담 실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임상적인 실천을 수행해가는 접근을 포함한다(Bouma-Prediger, 1990; Moon, 1997).

개인적 통합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격을 통해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유형은 상담의 인격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상담자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상담 현장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상담의 과정은 상담자의 인격적 통합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담은 내담자의 인격적 통합을 향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아울러 개인의 믿음과 일상적인 삶의 통합(Bouma-Prediger, 1990; Moon, 1997)도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데, 기독교 상담자는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자신의 일상적인 삶과 전문적인 삶 모두에 일치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믿음과 실제 사이의 통합을 이루어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한 개인의 자신 안에서의 경험 일치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험 일치를 의미하는 치유경험, 개인적 정체성, 영성, 영적 안녕 등 관련된 경험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적 통합은 상담의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가지며, 심리학, 영성, 성경, 기독교 등의 용어가 통합의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상담의 내용은 기독교적이어야 하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상담의 내용 중 비기독교적인 내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상대주의, 자기중심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등의 기본적인 전제나 철학적 세계관은 수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과 다르고, 그러한 상담은 기독교 상담이라고 할 수 없다. 심리학을 완전 배제하는 성경적 상담자들과 심리학의 내용 가운데 기독교의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만을 일부 수용하는 보수적인 상담자들이 이러한 통합을 실천하고 있으며, 성경의 위치, 기도의 중요성, 성령의 역할 등과 같이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들이 상담의 내용에 포함되어진다.

### 3) 통합의 모델

여기에서는 여러 기독교 상담학자들의 다양한 통합 모델들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Bouma-Prediger, 1990; Carter & Narramore, 1979; Collins, 1981; Crabb, 1992; Fansworth, 1982; Kirwan, 1984; Moon, 1997).

첫째, 대립적 입장으로, 이 입장의 학자들은 기독교와 심리학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양립될 수 없으며, 신학과 심리학 사이의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의 기독교 편에 있는 학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다른 학문에 의한 지식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인간의 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리학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영적 조언이나 충고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입장의 심리학 편에 있는 학자들은 합리주의, 경험주의만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종교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정신적 문제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부적응에 의해 이루어 지게 되므로, 심리치료를 통해서만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은 영화 관점과 비기독교 관점(Kirwan, 1984), 반대 모델(Carter & Narramore, 1979), 오직 하나의 모델(Crabb, 1982), 부인 접근(Collins, 1982) 등으로도 불리며, 기독교 상담 분야의 주요 학자는 J. E. Adams, C. Solomon 등(김용태, 2006)이 있다.

둘째, 종속적 입장으로, 종교에서의 좋은 심리학, 또는 좋은 종교심리학을 찾으려는 시도이며, 이 모델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신학과 심리학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으며, 상호 간에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의 기독교 편에 있는 학자들은 성경을 좋은 심리학 교과재로 생각하며, 성경의 내용들은 인간의 영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이해한다. 종교는 보수적이며 권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

는 불건강한 종교와 서로에게 좋은 감정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본주의 종교는 건전한 종교라고 이해한다. 이 입장의 심리학 편에 있는 학자들은 심리학에서 기독교적 요소를 발견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나 구원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기독교를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가치있는 삶을 전해주는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 입장은 소속 모델(Carter & Narramore, 1979)이라고도 불리며, 기독교 상담 분야의 주요 학자는 S. Hilter, J. Sanford 등(김용태, 2006)이 있다.

셋째, 병행적 입장은 기독교와 심리학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이해하며, 기독교와 심리학 모두 자신들만의 영역이 있으며, 서로 겹쳐지지 않는다고 본다. 이 입장은 두 가지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고립된 방식이며, 기독교와 심리학을 전혀 다른 분야로 이해하고 서로 중복되거나 겹치지 않게 갈등없이 각자의 위치를 인정하면서 존재한다. 다른 하나는 상관된 방식으로, 서로 같은 내용을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며 심리학적 개념을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거나, 기독교적인 현상을 심리학적 분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 접근에서는 통합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상관은 연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입장은 평행 모델(Carter & Narramore, 1979), 평행 관점(Kirwan, 1984), 분리되었으나 동등한 모델(Crabb, 1982), 철로 접근법(Collins, 1982), 병립 모델(Fansworth, 1982), 또는 이원론적 접근이라고도 불리며, 이 분야의 주요 학자는 G. Allport, F.Thorne, P. Clement 등(김용태, 2006)이 있다.

넷째, 통합적 입장은 기독교와 심리학 사이에 진정한 통합을 하고자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고 발전되고 있는 접근이다. Crabb(1982)은 자신의 통합이론을 이집트인에게서 빼앗기 모델(spoiling the egyptians)이라고 부르는데, 이 접근은 성경의 계시에 근거하여 성경

과 일치되는 심리학적 지식들은 받아들이고, 일치되지 않는 지식들은 버리는 통합의 방법이므로, 심리학적 지식들은 성경에 의해서 주의 깊게 걸러져야 하며 선택적으로 수용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Collins(1982)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과 일반계시인 심리학의 통합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Kirwan(1984)도 하나님은 모든 계시와 이성의 저자이시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관점에서 통합을 지향한다. Carter와 Narramore(1979)는 자신의 통합 모델을 제시하면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영역을 진리의 일치, 인간 존재의 본성, 정신병리의 기원, 성경의 균형적 사용, 다른 학문들의 독자성 존중, 기독교와 정신건강, 기독교와 심리치료 등 일곱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Farnsworth(1982)는 내재 통합이라는 자신의 통합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알아가는 전체 과정을 의미한다. 이 접근은 하나님의 실존적이고 일반적인 계시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과 하나님의 실존적이고 명제적인 계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발생시키거나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평가는 전체 삶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Collins(1982)는 통합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심리학과 신학의 전제를 살펴서 통합의 가능성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합의 기초는 계시(하나님은 존재하며 모든 진리의 원천이다)와 이성(존재하는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있다)이며, 그 위에 여섯 가지 가설(확장된 경험주의, 결정론과 자유의지, 성경절대주의, 수정된 환원주의, 기독교 초자연주의, 성경적 인류학)을 세워가는 재건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기독교 상담자는 진정한 신학과 심리학 간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Crabb(1992)이 던져진 샐러드 모델이라고 표현하는 혼합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틀과 성경적인 통합적 기준을 가지고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통합의 원리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 모델의 스펙트럼은 학자들의 신학적 입장과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통합모델의 주장과 내용들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원리와 지침은 존재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복음주의의 신학적 관점에서 통합의 실천과 적용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본적인 통합의 원리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의 원리는 계속적으로 보완되고 더욱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져 나아가야 하며, 통합의 실천적 노력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Jones & Butman, 2009; McMinn & Campbell, 2007).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통합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을 위해 절대 변할 수 없는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과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라고 할 것이다(Adams, 1981).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수용하는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것이므로, 기독교 상담의 과정은 Crabb(1982)이 말한 바와 같이 내담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이(move over)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을 위해 자신의 뜻과 경륜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정확무오한 성경의 권위이다(Adams, 1981). 인간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록되어진 성경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확신해야 한다. 일반 심리학이 속해 있는 일반 계시의 영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고 계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 상담의 진리이자 지침이 되어야 한다.

셋째,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을 위해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정리되어진 인간관을 견지해야 하며, 인간을 인지, 정서, 행동, 영성이 하나로 통합된 전인으로 이해하여야 한다(Crabb, 1982).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존재이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문제 배후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아울러 인간은 서로 더불어 연합하여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관계적인 존재이며, 청지기적인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존재이다.

넷째,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을 위한 기준과 틀이 되는 것은 창조-타락-구속으로 설명되는 기독교 세계관이다(정정숙, 1994).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들의 타락으로 인해 파괴된 형상을 복음으로 구속하고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기독교 세계관은 수용할 수 없는 심리학 이론들을 걸러내는 필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에서 위배되는 상담의 이론이나 접근은 기독교 상담의 과정에서는 결코 되어서는 안되는 접근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을 위해서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관, 인간관에 있어서 성경적 관점과 되도록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 심리학 이론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Crabb, 1982). 기독교적 관점과는 서로 상충되어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심리학 이론들은 통합적 접근이 어렵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가장 근접하게 부합하는 심리이론이 있다면, 심리학 이론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연구를 거친 후에 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심리학 이론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여섯째,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을 위해서 성경적 관점과 위배가 되

지 않는 상담기술과 기법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상담기술과 기법 가운데 인기가 있거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기법이 있다고 모두 수용하거나 활용할 수는 없다. 소위, 효과가 있다는 상담기법을 무분별하게 취합하는 것을 혼합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성경적 기준과 검증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 수용을 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Crabb, 1982). 아울러 영적 분별력과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수용 가능한 상담기법들을 찾아서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함으로써, 기독교 상담의 임상적 실체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을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 공동체의 전통적인 신앙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전요섭, 2007). 신앙자원은 기독교 상담의 특권이자 자량이 될 수 있으므로, 신앙적 자원들의 활용은 내담자들로 하여금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의 소속감과 사랑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신앙자원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활용이며, 이 외에도 설교와 교육, 선교와 봉사, 예배와 찬양, 세례와 성찬, 개인기도와 중보기도, 지지그룹으로서의 공동체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자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을 위해 기독교 상담자의 자질과 인격, 신앙과 삶과 삶, 상담실천, 그리고 상담윤리 등이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전요섭, 2007). 기독교 상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성경적 성품을 함양하며 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자 노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변화와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기독교 상담자로서 상담의 이론과 실제, 윤리에 있어서 통합을 이루어가는 실천적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Collins, 1983).

## 2. 기독교 상담에서의 과정과 기법의 통합적 특징

### 1) 기독교 상담의 과정과 기법

앞서 기독교 상담에서의 통합의 역사, 유형, 모델, 원리 등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는 몇몇 주요한 기독교 상담학자들의 상담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독교 상담의 과정과 단계를 살펴보겠다. 자유주의 신학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 상담학자의 경우,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상담이론과 그 과정 및 기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에, 보수신학과 복음주의 진영의 주요 기독교 상담학자들의 기독교 상담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 상담의 과정과 단계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권면적 상담을 주창한 J. E. Adams(1981: 37-43)는 기독교상담의 과정을 ‘문제해결의 과정’이라 부르며, 5가지 단계로 설명한다. 이 단계들은 첫째, 경청(listening)하라, 둘째, 이해(understanding)하라, 셋째, 분석(clarification)하라, 넷째, 권면(comfortation)하라, 다섯째, 해결(habituation)하라 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Adams에게 ‘문제해결의 과정’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dehabituation), 새 습관을 입어가는(rehabilitation) 재습관화의 과정(골 3:9-10)’이라고 할 수 있다.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의 과정 가운데, 내담자의 진정한 회개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반복되는 상담과 8~12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는 일반상담에서 이루어지는 단기상담치료의 회기와 비슷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Adams는 일반 심리학 이론과 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활용하지는 않았으나, 상담 과정의 전개나 기간 등의 적용에는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dams(1981)는 기독교 상담에서는 성경 외의 그 어떤 것도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체 상담의 회기와 전개 등을

위해서는 심리학의 다양한 과정과 기법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J. E. Adams가 권면적 상담의 연구와 실천을 위해 세운 기관인 CCEF(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 Foundation)의 후학들인 D. Powlison, E. Welch, P. Tripp 등은 권면적 상담을 성경적 상담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까지 성경적 상담(Biblical Counseling)의 연구와 실천 및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들 중 Tripp은 성경적 상담의 과정을 사랑하라(Love) - 알라(Know) - 말하라(Speak) - 행하라(Do) 등 4개의 단어로 간략히 요약, 설명하고 있으며, 황규명은 이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풀어서 성경적 상담의 구체적인 과정을 관계형성과 격려 - 자료수집과 분석 - 성경적 직면 - 변화를 위한 지원 등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황규명, 2008). D. Powlison(2009)은 내담자의 변화와 통찰을 위하여 현미경 질문 등과 같은 적절한 질문법을 활용하였으며, CCEF의 다른 상담자들도 내담자 문제 이해 및 진단을 위해서는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이론과 정보를 참고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L. J. Crabb(1982: 167-184)은 Adams보다 먼저 성경적 상담이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했던 기독교 심리학자로서, 기독교 상담의 과정을 7단계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1단계, 문제 감정들을 확인하라, 2단계, 문제 행동들을 확인하라, 3단계, 문제 사고를 확인하라, 성경적인 가르침을 거쳐 4단계, 성경적 사고를 명백히 하라, 5단계, 안전한 결단, 6단계, 성경적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라, 7단계, 영적으로 조절된 감정을 확인하라. 변화와 성숙을 상담의 목표로 하는 Crabb의 7단계 모델은 전인적 인간이해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모델이며, REBT 등과 같은 인지-정서-행동의 전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일반 심리학 이론들과의 통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담과정이라 생각되어진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Crabb는 심리학 이론과 지식을 인간 이해와 문제 통찰을 위해 활용하였으며, 다양

한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 및 기법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G. R. Collins(1972: 22-34)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관계 설정에 신경을 씬으로 시작하라, 둘째, 주의깊게 경청하라, 셋째, 조심스럽게 관찰하라, 넷째, 침묵을 두려워 말라, 다섯째, 지혜롭게 질문하라, 여섯째, 반응하는 법을 배우라, 일곱째, 영적인 자원을 활용하라, 여덟째, 긍정적으로 끝맺음하라. Collins는 상담의 과정을 체계적,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기보다는 상담 실체에 있어서의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콜린스가 일반 상담이론과의 통합에 대해 상당히 열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담과정을 제안하기보다는 수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담의 과정 가운데 기독교 상담자로서 적용해야 할 주요 지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ollins(1981: 152)는 자신의 *Rebuilding model*을 설명하면서 기독교와 심리학 영역의 각각의 주요한 이론적 개념들을 풀어서 하나님과 인간 이해에 대한 2가지 기초(계시, 이성)를 토대로 6가지 통합의 기준들(확장된 경험주의, 결정론과 자유의지, 성경 절대주의, 수정된 환원주의, 기독교 초자연주의, 성경적 인류학 등)을 확립해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심리학의 이론과 기법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W. Kirwan(2007: 163-226)은 첫째, 소속감의 전달: 내담자가 상담자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단계, 둘째, 건덕의 단계: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고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 셋째, 섬김의 단계: 개인행동과 노선의 변화를 통해 내담자가 하나님과 타인을 섬기게 되는 단계 등과 같은 세 단계의 기독교 상담과정을 제시하였으며,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을 지향하고 실천하였다.

## 2) 기독교 상담과정의 통합적 특징

이상에서 주요한 기독교 상담학자들의 기독교 상담과정에 관해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보수신학과 복음주의 진영의 주요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 상담이론의 상담과정과 단계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상담의 과정은 상담의 초기-중기-말기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기독교 상담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주요 상담 활동을 요약하여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Adams(1981)가 제시하는 경청-이해-분석-권면-해결의 단계와 CCEF(황규명, 2008)의 Love-Know-Speak-Do의 단계는 상담의 초기부터 말기까지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제시된 요약된 상담의 과정이라 하겠다. Adams(1981)는 기독교 상담의 회기를 8~12주의 일반 상담에서의 단기상담회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일반 상담의 과정과 회기와도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써, 기독교 상담의 통합적 접근에 중요한 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기독교 상담의 과정은 하나의 축약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독교 상담의 과정이 기독교 상담의 주요 개념과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dams(1981)는 내담자 문제 해결의 과정을 ‘재습관화(rehabilitation)의 과정’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권면적 상담이론의 내용 중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의 배후에는 ‘죄’가 있다는 전제를 떠올리게 해준다. 아울러 상담의 과정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입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축약된 이미지를 통해 기독교 상담의 목표와 과정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진다. Crabb(1982)도 변화와 성숙을 상담의 목표로 하는 7stage 모델을 통해 4단계(성경적 사고를 명백히 하라)를 중심으로 1,2,3단계를 전이

(move over, 변화)의 과정으로, 5,6,7단계를 상승(move up, 성숙)의 과정으로 이미지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셋째, 기독교 상담의 과정은 전인적 인간이해를 기초로 구성함으로써, 내담자의 변화와 성숙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Crabb(1992)은 7단계 상담 모델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가 되는 감정, 행동, 사고가 성경의 가르침으로 성경적 사고가 확립되고, 안전한 결단을 통해 성경적인 행동과 감정으로 변화되는 전인적 변화와 성숙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일반 상담이론 중 전인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REBT와 매우 비슷한 접근으로 이해되어지지만, 가장 표면에 드러난 부분을 행동이 아니라 감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변화의 가장 중요한 관건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한 성경적 사고를 분명히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결단을 통한 성경적 행동과 감정이 내담자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한다는 것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REBT와의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기독교 상담의 과정에는 일반 상담의 과정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기독교적인 개념이나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Adams(1981)의 상담과정에서의 권면이라는 요소와 CCEF의 ‘Speak’의 개념은 일반 상담에서의 ‘직면’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Crabb(1992)이 말하는 상담의 목표 또한 내담자의 문제의 해결이나 문제 감정, 행동, 사고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고, 행동, 감정이 드러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성숙의 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Collins(1983)가 기독교 상담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영적인 자원 활용’이 있는데, 이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자원과 기독교 공동체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상담의 독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접근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 상담의 과정은 일반상담의 과정과 매우 유사한 접근, 유사하지만 다른 접근, 전혀 다른 접근 등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으므로(안경승, 2016), 기독교 상담자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영적 분별력과 이론분석능력, 상담실행능력 등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기독교 상담기법의 통합적 특징

기독교 상담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그 결과 도출된 기독교 상담의 통합 원리를 8가지로 제시했으며, 대표적인 기독교 상담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 상담의 과정과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기초로 기독교 상담의 실제 임상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 상담기법의 통합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통합적 특징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기독교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렌즈로 삼아서 상담기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상담자의 영적 분별력과 비판적 판단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일반 상담 현장에서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기법 가운데 상담의 과정과 단계(초기-중기-말기)를 운영함에 있어 꼭 필요한 기법(주의집중, 경청, 공감, 자기노출, 직면, 즉시성, 진실성, 요약, 명료화 등)이나 초기면접 기술 및 검사도구(초기면접질문지, SCT 등)는 일반 상담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거부해야 할 이유나 명분이 성립되지 않는 상담기법(질문기법, 과제 등)은 적절하게 수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arlkuff(이형득 외, 1987)의 상담기법이나 Prochaska 등(1984)의 변화 모델 등은 어떤 이론이나 접근에도 대체로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심리검사 도구(성격검사, 투사검사, 진로검사, 부부검사 등) 등의 경우, 이론적 배경이나 검사도구의 특성 상 성경적 기준에 위배 되지 않는다면 기독교 상담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기법 가운데 아무리 인기가 있어나 효과가 있는 도구와 기법이라 할지라도, 성경적 기준에 입각한 검증의 절차없이 아무 도구나 기법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먼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 다음으로, 임상 실제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증된 것인지를 질문하고, 아울러, 상담윤리(사회적, 도덕적, 성적 등)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질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질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도구나 기법은 수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초월심리적 관점에서 개발되어진 검사도구(예: 타로카드 등) 또는 상담기법(예: 전생최면 등) 등과 같은 것은 기독교 상담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도구이며 기법들이라 하겠다. 기독교 상담자가 상담도구 및 기법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이러한 도구나 기법의 영향이나 폐해를 막을 수 있으며, 내담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독교 상담의 임상 실제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상담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 기도, 찬양, 예배, 심방, 성찬, 성례 등과 같은 기독교의 전통자원들과 신앙서적, 묵상의 도구와 방법들, 신앙 글쓰기 등과 같은 방법들은 기독교 상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고유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 상담이나 심리치료 장면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접근이겠지만, 영혼의 치유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영적 변화를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에서의 영적 자원의 활용은 기독교 상담에서는 충분히 의미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성경 말씀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독교 상담자들은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말씀훈련을 통하여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의 적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독교 상담의 임상 현장 가운데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담 도구 또는 기법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찰적 질문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CCEF의 엑스레이 질문(Powlison, 2009)등과 같이 신앙적 또는 영적 주제에 관해 탐색하기 위해 개발된 심리검사 척도 및 도구의 개발과 활용, 미술치료나 독서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진 기독교적인 치료적 기법 등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진다. 이미 다양한 척도나 검사도구(기독교 양육척도, 신앙성숙 척도, 영적 안녕 척도 등)이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이론적이며 실제적으로 기독교 상담이론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도구나 기법의 개발 및 활용이 발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다섯째, 기독교 상담을 수행하는 기독교 상담자를 위한 다양한 상담 기법의 활용과 훈련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이관직, 2010).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에서의 상담자의 자기분석이나 상담사례 수퍼비전 등을 통해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을 다듬어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지만, 기독교 상담의 통로이며 도구요, 인도자이며 조력자로서의 기독교 상담자는 자신의 내적 변화와 성숙을 위한 성경적인 자기관리 및 훈련방법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상담자로서의 조력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상담실습, 수퍼비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기독교 상담자는 영적 자질의 성장을 위해 건전한 신앙과 생활을 확립해 가야 할 뿐 아니라, 학문적, 실제적, 개인적 통합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Ⅲ. 닫는 글

기독교 상담학은 독자적인 상담이론과 상담과정(모델) 그리고 상담기법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상담학에 대해 기독교인 상담자들이 하는 상담, 또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상담 등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기독교 상담학은 이론적 접근은 강하지만, 실제적 접근은 매우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상담학이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상담해주기에는 너무 신앙중심의 사변적이고 원론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독교 상담자들이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의 이론들과 실제 기법에 매료되어 기독교 상담자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기독교 상담학에 대한 무력감과 상대적 열등감에 젖어들기도 하며, 기독교 상담자가 오히려 기독교 상담학을 먼저 평가절하하여 기독교 상담적 접근을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때때로 갖게 되기도 된다.

심리학의 역사에 비해 기독교 상담학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다. 수용의 역사만 해도 1920년대 임상목회교육부터 약 100년 남짓이며, 본격적인 기독교상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통합의 역사는 Kunkel이 통합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이래(Vande Kemp, 1996), 이제 7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통합의 단계로 보면, 1980대 이후부터 통합의 실제적인 단계로 접어들어 ‘학문 간의 통합’, 즉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본격적으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통합에 대해 연구하며 발전해 가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McMinn & Campbell, 2016).

기독교와 심리학을 건설적으로 통합하는 데에는 필요한 두 단계

(Jones & Butman. 2009), 즉, 심리학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대화하는 '비평적 평가 단계' 와, 기독교와 심리학의 장점을 종합하여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론 구축 단계' 는 이미 진행 중이며, 이제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통합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이루어가야 하는 시대이다.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 가운데 일반 심리학의 영역에서도 자신의 심리학 이론과 접근만을 고집하지 않고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Jones & Butman. 1991; McMinn & Campbell, 2016; Marquis, 2011; Welfel & Patterson, 2009). 따라서 이 시대에 기독교 상담학은 기독교와 심리학의 이론의 통합(학문적 통합), 임상 현장에서의 보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과정과 기법(실제적 통합), 상담자 개인의 지식과 기술과 신앙과 삶의 통합(개인적 통합), 기독교 상담의 독특하며 고유한 내용 및 주제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통합(내용적 통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야 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가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용태 (2006).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서울: 학지사.
- 김용태 (2013). 종합적이고 통합적 성격의 기독교 상담학: 학문의 구조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1, 9-32.
- 안경승 (2016). 기독교 상담과정의 독특성. *복음과 상담*, 24(2), 221-253.
- 오윤선 (2010). *기독교 상담심리학의 이해*. 서울: 예영 B&P.
- 이관직 (2010). *성경적 수퍼비전*. 서울: 대서.
- 이형득, 설기문 (1987). *조력기술훈련의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 전요섭 (2007). *기독교상담과 신앙*. 서울: 좋은나무.
- 전형준 (2014). 기독교상담의 통합모델에 관한 성경적 상담학적 조명. *복음과 상담*, 22(1), 256-289.
- 정정숙 (1994). *기독교상담학*. 서울: 베다니.
- 황규명 (2008).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 리더스.
- Adams, J. E. (1981). *목회상담학*(정정숙 역, *Competent to Counsel*).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원전 1970 출판).
- Adams, J. E. (1992). *상담학개론*(정정숙 역, *The Christian Counselors's Manual*). 서울: 베다니. (원전 1970 출판).
- Bouma-Prediger, S. (1990). The Task of Integration. : A Modest Proposal.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8, 21-31.
- Carter, J. D. & Narramore, B. (1979).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Academic Books, Zondervan Publishing House.
- Collins, G. R. (1972). *Effective Counseling*. Carol Stream.: Creation House.
- Collins, G. R. (1981). *Psychology & Theology: Prospects For integration*. Nashville: Abingdon.
- Collins, G. R. (1983). *훌륭한 상담자*(정동섭 역, *How To Be A People Helper*).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1976 출판).
- Crabb, L. J. (1982). *성경적 상담학*(정정숙 역,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원전 1977 출판).
- Farnsworth, K. E. (1982). The conduct of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0, 308-319.

- Hurding, R. F. (1985). *The Tree of Healing : Psychological and Biblical Foundations for Counseling and Pastoral Car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Ministry Resources Library.
- Jones, S. L., & Buttman, R. E. (2009). 현대 심리치료와 기독교적 평가(이관직 역,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서울: 대서. (원전 1991 출판).
- Kirwan, W. T. (1984).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 A Case for Integrating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Marquis, A. (2011). 통합심리치료(문일경 역, *The Integral Intake*). 서울: 학지사. (원전 2008 출판).
- McMinn, M. R., & Campbell C. D. (2016). 통합적 심리치료(전형준, 남병철 역, *Integrative Psychotherapy: Toward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oach*) 서울: CLC. (원전 2007 출판).
- Moon, G. W. (1997). Training tomorrow's investigators in today's busy intersection: Better look four ways before cross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284-293.
- Powlison D. (2009).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김준 역, *Seeing With New Eyes : Counseling and The Human Condition Through The Lense of Scripture*). 서울: 그리심. (원전 2003 출판).
- Prochaska, J. H., & DiClemente, C. C. (1984). *The Transtheoretical approach : Crossing Traditional Boundaries of Change*. Homewood, IL.: DowJones/Irwin.
- Vande Kemp, H. (1996). Historical Perspective: Religion and clinical psychology in America. In E. P. Shafranske (Ed.), *Religion and the clinical practice of psychology*. 71-112. Washington DC: APA.
- Welfel, E. R., & Patterson, L. E. (2009). 상담 과정의 통합적 모델(한재희 역, *The Counseling Process: A Multitheoretical Integrative Approach (6th ed.)*). 서울: Cengage Learning Korea Ltd. (원전 2005 출판).

【 Abstract 】

## The principle and character of the Integration in the Christian Counseling

**Kang, Yeon Jeong**

Kosin University

The history of Christian counseling developed in the history of acceptance, reject and integration between Christianity and psychology. The principles of integr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are: Trinity, authority of Bible, Biblical human condition, Christian worldview, eclectic acceptance of psychology, eclectic acceptance of counseling skills and methods, resource of faith community, personality, faith and ethics of Christian counselor.

First, the process of counseling is presented in the time series : early-middle-last stage of counseling. Second, the process of counseling is presented in the image of concept and purpose of counseling. Third, the process of counseling is presented in the base of wholistic human understanding. Fourth, the process of counseling is presented in the resource of Christianity.

There are principles of the skills and methods of Christian counseling. First, Christian counseling can accept and use general counseling skills and methods eclectically in the Christian perspectives. Second, Christian counseling examine generally useful counseling skills and methods in the Christian perspectives. Third, Christian counseling make use the traditional resources of the Christian community. Fourth, Christian counseling need the new developed counseling tools, programs, skills and methods for the practical situation. Fifth, Christian counseling need the new developed Christian counseling & training program and supervision for the Christian counselors.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Integration, Principle of Integration, Christian counseling process, Christian counseling skill